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 김 홍 식
편집인 : 김 관 목
인쇄인 : 김 성 회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동대문구회경동 112-49
우.130-875
홈페이지 : andongkim.net

새해 인사 말씀(新年辭)

종친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셨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총렬공 양 위분향사를 비롯하여 각과선조님의 향사가 거족적으로 봉행되었으며 각 門中에서는 先祖爲先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안동김씨 종친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가 가고 대망의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종친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한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하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나라의 경제는 수년째 침체의 늪에 빠져 여러모로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종친 여러분께서는 이어려움

이 는 우리 안동김문의 투철한 송조목족의 정신이라하겠습니다. 이와같은 훌륭한 정신을 우리종친들께서는 자손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종친여러분! 40회 총회가 3월 달로 다가왔습니다. 인근 종친들과 연락하시어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봄을때까지 종친 각가정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에 가겠습니다.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홍식 拜上

忠烈公 兩位 時享奉行

11월 29일 안동 능동에서, 종친 300여명 참석



2006년 11월 29일(음 10월 9일) 오전 11시 안동시 북전면 능동에서 총렬공 할아버님의 시향이 경향각지에서 약 30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날은 비도 그치고 날씨도 화창하여 더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12시경 시향을 마치고 음수재에서 종친간에 담소를 나누며 중식을 들고 오후 1시반경 회곡동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할머님 묘

소로 이동하여 시향을 봉행하고 오후 3시경 해산하였다.

이날 분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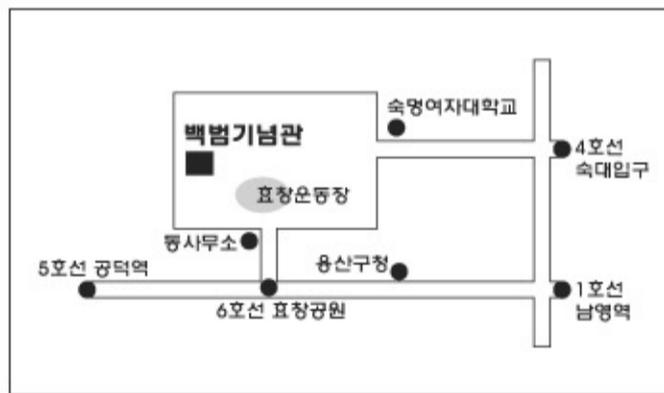
- 총렬공 할아버님
초헌관 홍식 대종회장
아헌관 수진 정의공파회장
종헌관 (제)용두
독 축 영만 인렬사공파 회장
집례 (익)경희
- 죽주박씨할머님
초헌관 홍식 대종회장
아헌관 (제)상천
종헌관 (익)태인
독 축 (익)동수
집례 (안)영만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2007년도 안동김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친여러분께서는 인근 종친과 상호연락하시어 대성황을 이룰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7년 3월 1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백범기념관



-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내)
- ▶전화 : (02)719-1311~2
- ▶회의안건
(1) 2006년도 회계결산 승인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3) 2007년도 사업계획승인
(4) 기타사항
- ▶당일회비 : 30,000원

丁亥年은 萬事亨通하시고 延年益壽無疆하소서

謹賀 新年

- 고문 | (익)찬희 (군)재철 (군)재석 (부)동철 (문)재승 (문)종희 (도)용수 (제)상훈 (제)상운 (제)상몽 (제)상조
(안)재학 (안)호진 (안)재택 (익)명희 (개)상국 (익)명섭 (익)준희 (서)관호 (익)신 (익)차희 (제)학용
- 명예회장 | (안)태인
- 회장 | (안)홍식
- 부회장 | (밀)영웅 (개)이경 (군)수인 (전)근성 (부)규장 (문)광우 (안)재환 (도)학수 (대)재철 (제)남웅 (관)봉선
(안)영만 (익)재용 (서)상호 (정)수진 (익)명희 (익)성식 (군)경복 (문)영공)회윤 (익)실경 (인)준교
- 감사 | (제)영년 (제)태욱
- 이사 | (밀)재교 (개)응선 (군)창희 (군)재곤 (전)재석 (부)종대 (문)수길 (문)광도 (도)봉희 (도)호봉 (도)철수
(대)재식 (제)상천 (제)한식 (제)태욱 (안)재홍 (안)사부 (안)재균 (안)선희 (안)홍식 (안)태문 (익)재관
(익)영준 (익)호식 (익)태규 (익)태영 (익)태철 (익)재광 (익)용세 (익)선희 (익)만길 (서)규면 (정)태국
- 집행부 | (안) 사무총장 관복 경리부장 손윤순 상임유사 (익)광현

정간공, 영삼사사공, 안렴사공 3위 시향봉행

2006년 11월 25일(음 10월 5일) 10시 충북청원군 오창면 모정리현지에 서 정간공(휘, 영후), 영삼사사공(휘, 천), 안렴사공(휘, 시렴) 3위시향이 후손 및 종친 1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향사에는 익원공과 종회에서 재용회장을 비롯하여 10여명 제학공파종회에서 학음, 전문영공회장을 비롯하여 8명 전서공파종회 인친종친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분정은 다음과 같다.

안렴사공종회제공

- ▶정간공
초헌관 재육 청원군수
아헌관 (제)태육 대종회감사
종헌관 재홍
- ▶영삼사사공
초헌관 (익)기희
아헌관 (진)춘교 인천종친회장
종헌관 예복
- ▶안렴사공
초헌관 태영
아헌관 태석
종헌관 (익)재관

장령공, 전서공, 검교근시공 삼위시향

2006년 11월 24일(음10월 4일) 11시 충남 연기군 전의면 미곡리 학당 후산묘정에서 종친 및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령공(휘 구), 전서공(휘 성목), 검교근시공(휘 휴) 삼위시향을 봉행하였다. 이날 시향에는 홍식대종회 회장, 태육 감사, 성회전부회장, 관목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분정은 다음과 같다.

- | | | |
|------------------------------------|------------------------------------|------------------------------------------------|
| ▶장령공
초헌관 태건
아헌관 홍식
종헌관 근성 | ▶전서공
초헌관 태영
아헌관 춘교
종헌관 동희 | ▶검교근시공
초헌관 태정
아헌관 용운
종헌관 태육
대 축 태창 |
|------------------------------------|------------------------------------|------------------------------------------------|
- 전서공파종회제공

향전원에

경조화환 · 화분

대표 김 재 균

전화 : 783-3166~7
780-8477
팩스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브린스텐)층 1,2호



서운관정공后

하당공 영정 고유제 봉행

荷塘公(諱 瞻, 1542~1584)영정이 지난 3개월간의 제작 끝에 2006년 12월 15일 완료되어 제5회이사회(2006년 12월 28일(금))에 앞서 종중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회관에서 11시에 영정봉안 고유제를 거행하였



다. 공의 영정제작은 종중의 년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5월 영정제작 전문기관을 조사하고, 9월에 '후암미술연구소(소장 김진삼)'을 제작업체로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약 3개월간에 걸쳐 제작하였다. 제작기간 중에는 2회에 걸쳐 詳浩이사장, 在竣부이사장, 元永부이사장 및 誦浩사부국장이 합동으로 제작검증과 고증을 거쳐 역사적인 하자가 없도록 했다.

영정제작은 중부고속도로공사로 공(公)을 모셨던 기존 묘역의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부득이 현재 문화재묘역으로 천묘하게 되었다.

1985년 9월9일 천묘당시 '미이라'로 발견된 하당공의 사진과 후손의 얼굴모습 및 이사장의 선몽(先夢)한 자료를 토대로 그렸다. 영정의 크기는 65호로 가로90cm, 세로130cm로서 영인본과 표구는 基永이사가 수고를 하여 제작 완료하였다. 영정은 인양재실과 광주재실에 각각 봉안할 예정이다.

이날 봉안고유제는 전통제례에 의한 방법으로 거행하였으나 앞으로 영정을 모시고 제(祭)를 올려야 하는 바 영정의 점안(點安)과 광명(光明)을 부여하고 비교적 일찍이 즐하신 삶의 애환(哀歡)을 달래기 위하여 이사장의 불교식 의례를 겸하여 엄숙하게 거행하였다.

-서운관정공 종회 제공-

성금을 보내 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총렬공 향사시 찬조금 명단

- 100만원 : (按) 홍식 - 대종회 회장
 - 30만원 : 문영공 종회
 - 10만원 : 밀직사사공파종회, 개성윤공파종회, 문은공파종회, 안렴사공파종회, 익원공파종회, 서운관정공파종회, 인천종친회, 대구종친회, (郡)독정침의공종중 (文)포전별제공종중, (提)백진종약소 생원공종회 (郡)수인, 홍수 (正)수진 (典)춘교 (文)영수-日本大阪, 두회, 전회 (翼)문원
 - 7만원 : (按)영식
 - 5만원 : 제학공파종회 (典)화성정남종중 (郡)양천종중 춘천종중, 영주승문종중, 문경신인형천종중 (按)영간, 태봉, 태영, 용주 (郡)호석 (副)재유 (典)종대 (文)동호 (翼)광득, 동수, 성식, 태인, 태규, 봉석, 영수 (提)용두, 태육, 상천, 상기 (正)수성
 - 3만원 : (翼)재택, 용진 (郡)재찬 (文)별제공파감사
- 계 : 4,690,000(원)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2006.11.1~2007.1.24)

- ◎ 평생회비 20만원 : (翼) 수남
- ◎ 찬조금
30만원 : (翼) 윤묵
10만원 : (翼) 실경, 준엽 (典) 근성
5만원 : (翼) 한식, 병국, 용섭 (提) 태육 (文) 천희 (郡) 승용
3만원 : (翼) 용해, 재복
2만원 : (翼) 윤한
1만원 : (翼) 태원
- 계 : 990,000(원)
- ◎ 통상회비
50만원 : 인천광역시 종친회
5만원 : (按) 철현, 성회-청주시 (郡)우회 (書) 관호 (翼) 세용, 재봉
3만원 : (大) 창우 (提) 태수 (按) 용희, 영희, 광복 (翼) 재한, 봉수, 재방 (郡) 재근, 재경, 건용, 재신, 대용
2만원 : (副) 수일, 인회 (提) 봉희 (按) 경준, 영진 (翼) 영재, 수인, 원식, 성희 (書)진용 (大) 재철 (文) 득호
1만원 : (翼) 태호 (郡) 형수 (文) 재희
- 계 : 1,460,000(원)

문영공 시제 봉행 및 정기총회 거행



〈문영공 시제 초헌관 헌작 장면〉

지난 2006년 11월 27일(월) 오전 11시, 경기도 안양시 관양1동 영보재에서는 문영공(휘 恂) 선조님에 대한 시제 봉행 및 정기총회가 성대히 거행되었다. 우천관계로 묘소가 아닌 재실(영모재)에서 약 200여 명의 후손들이 모여 시제를 봉행하였는데 헌관 및 분정표는 다음과 같다.

初獻官-俊會(제, 문영공대종손), 亞獻官-弘植(안, 대종회장), 終獻官-榮俊(익), 大祝-聖會, 執禮-命會, 掌饌-太圭, 陳設-琪會, 奉香-安會, 奉爐-萬吉, 奉爵-泰喆, 奠爵-喆會, 司樽-容周, 贊人-在光, 直日-鶴應(문영공종회장)

제례는 실내인 관계로 다소 비좁았으나 엄숙한 가운데 모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하여 감신례, 참신례, 초헌례, 독축, 아헌례, 종헌례, 유식례, 진다례, 사신례, 고예성, 분축, 음복, 절상의 순으로 봉행하였다.

시제에 이어 그 자리에서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선회(안)총무님의 개회선언에 이어 학용(제)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해에 발간한 <문영공 종사록>의 교정 불충실로 인해 많은 오탈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하였다. 경과보고에서 선회 총무님은 종사록 불령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하였고, 회장 이하 각 임원들의 임기가 2, 3년 등으로 달리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통일하자는 개정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음 감사인 태영(익)종친님의 감사 보고, 재무인 영복(제)종친님의 결산 보고에 이어 대의원회에서 추대된 신임회장 최윤(안, 승행)종친님에 대한 추대과정과 소개가 있었다.

신임 최윤회장님은 인사말씀을 통해 전임 회장님들의 큰 업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성심을 다해 종회

를 운영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문영공 묘소 발견과 이안과정, 그동안의 종회 주요 연혁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자신의 임기 내에 문영공 묘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사업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신임 감사에는 태욱(제)종친이 선임되었고 태영(익)종친은 유임되었으며, 신임 총무에는 용주(안)종친이 위임되었다.

이어 선회총무님은 그동안의 중요 종회 운영 내용과 문영공 종사록 발간 과정을 설명하였고, 특히 종사록 내의 문영공 관련 신자료는 안동김씨 홈페이지에서 전재했음과 이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한 안시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 연구회)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큰 노고와 환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안시연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총렬공 이하 실묘된 선조님들의 묘소 찾기, 제주 향파두리성의 향몽비와 관련한 총렬공 선조의 업적 선양에 대한 연구 등을 요청하면서, 향후 안시연의 신자료 발굴 및 연구자료에 대한 정기적 책자 발간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리고 총렬공 소재 일본



〈정기총회 장면〉

소설인 <풍도>와 <검푸른 해협>, 봉석종친(익)의 본격 창작 소설인 <김방경, 일본을 정벌하라> 등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오랫동안 문영공 종회에 헌신 노력하신 재무(영복)와 총무(선회)께 드리는 선물 증정이 있었으며, 기타 건의사항에서 태환(제)종친은 발언권을 얻어 안시연의 연구활동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문영공 종회에서 담당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날 종회에서는 신작 총렬공 소설을 판매하였고, 중식 후 전 참석종친들에게 기념타올을 배부하였다.

기사 제공자 : 領鍾(提)

2006년도 문온공파 시제 봉행 - 금수단 시제일 변경 예정



문온공파 시제가 2006년 11월 21일 11시 정각, 금수단과 가양리 선영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시제 봉행에 앞서 정기총회에서는 젊은 종인과 가족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시제일을 공휴일로 변경하기로 만장일

치 의결하고, 날짜 선정을 이사회에 위임하였다.

안동김씨대종회 사무총장(관복)이 참석, 자리를 빛내 준 이날 시제에서 관목 사무총장은 대종회장님을 대리해 "문온공파종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또한 그 동안 계대가 끊어진 것으로 알았던 직제 학공계 학생공(휘 尙弘)의 후손인 재호 종친이 참여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휘 尙弘은 학생공(휘 世壽)의 2子 이시다.

한편, 정기총회에서 총렬공 전기 소설 '김방경 일본을 정벌하라' (익원공파 봉석 종친 지음)가 소개되어 종친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문온공파 시제는 2005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해 3계(系)의 의견을 통합, 제례절차를 새로이 제정·시행해 오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제학공파 시제 봉행 및 주부공(휘 哲鈞) 묘소 이안 거행〉



〈시제 봉행 후 기념촬영〉

1. 제학공 외 6위 선조님 시제 봉행

지난 2006년 11월 28일(일) 오전 11시,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일명 잣밭) 도정사에서 제학공 외 6위 선조님에 대한 시제를 봉행하였다. 약 70여 명의 후손들이 모여 정갈하게 마련한 제수와 집례(남응)의 고아한 참함에 따라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는데, 특히 안렴사공파의 璇會, 泰文종친께서 참례하시어 더욱 자리를 빛나게 하였다. 이날 시제 봉행위 및 분정표는 다음과 같다.

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본파종회가 있기 까지 고생해 오신 전임 회장 및 여러 임원 여러분들의 활동과 업적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겠으며, 종친간의 친목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선조님들의 업적과 정신을 빛내는 일에 매진할 것을 약속' 하였다.

이어 부회장(한식, 상천-신임), 감사(전용-유임), 총무(태욱-유임) 등의 임원 소개 및 인사, 총렬공 소설 〈김방경, 일본을 정벌하라〉 소개, 향용종친의 안동김씨 홈페이지 소개와 인사연 소개, 폐회사 등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또한 행사중에는 총렬공 소설 약 50여 권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2. 제학공파 비안공 문중회 시제 봉행 및 제15회 정기총회 거행

지난 2006년 11월 19일(일), 오전 10시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을 동부리의 〈세덕사〉에서는 제학공파 비안공문중회(회장-斗應)의 시제 봉행 및 제15회 정기총회가 거행되었다. 약 41명(내자 7명 포함)의 종친들이 모여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먼저 비안공 외 16위에 대한 시제 봉행이 국한문혼용식의 흥기에 따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봉행위 및 분정표는 아래와 같다.

*총관-태섭, 집례-향용, 찬인-규성, 전작-상석, 봉로-용대, 봉향-태선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총익공(휘 시양) 묘비건립 행사 보고와 총익공 신도비 문화재 등록 신청 보고, 제1회 문중 역사 연수 자료로 대보공(휘 關智) 탄강설화 소개와 총익공 김시양 선조님의 석사 학위 논문 소개가 있었다. 약 50여 권의 총렬공 소설 판매에 이어 중식을 마친 뒤 3개 지역으로 나뉘

묘소 참배를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3. 주부공(휘 哲鈞) 묘소 이안

제학공(휘 益達) 선조님의 증손이신 주부공(휘 哲鈞) 선조님에 대한 이안 행사가 지난 2006년 12월 28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백전에서 있었다. 주부공의 묘소는 지난 1968년 서울



〈이안 후의 모습 좌 주부공(휘 哲鈞), 우 승지공(휘 壽亨)〉

시 관악구 상도동에서 이곳 백전마을 놀락동으로 옮겨 왔는데, 지난 2004년 6월 백전마을 뒷

봉행위	文肅公 (諱永暉)	上洛伯公 (諱 纘)	提學公 (諱 益達)	司諫公 (諱 順)	監察公 (諱孟廉)	主簿公 (諱哲鈞)	承旨公 (諱壽亨)
초헌관		俊會		榮基		相天	
아헌관		天應		文植		潁植	
종헌관		璇會		泰錫		泰煥	

執禮-南應, 大祝-愉應, 贊人-容斗, 執事-泰玉, 奉香-在基, 奉爵-振應, 司牌-福應, 奠爵-泰燮, 直日-相沃

시제 봉행 후 제학공파종회 정기총회가 이어졌는데 먼저 承默회장님의 개회사와 인사말, 2006년 주요 사업 보고, 이사회에서 선정된 신임 회장(南應)에 대한 만장일치 추대, 감사보고, 총무의 예결산 보고가 있었다. 신임 남응회



〈비안공 문중회 세덕사 시제 봉행 장면〉

산에 147위를 모신 학암묘원이 조성된 후 외파로 있던 주부공 묘소를 이번에 학암묘원 상단에 있는 아드님 승지공(휘 壽亨)의 묘소 원편으로 이안한 것이다. 천안 병천의 제학공파 병천문중(회장-남응) 주관으로 추진된 이날 행사에는 약 30 여명의 후손들이 모여 원형의 호석을 두른 신 묘소를 조성하고 엄숙하게 고유제를 올리는 이안 행사를 거행하였다.

*주부공(主簿公) 소개-생물년 미상, 1420년(세종2)-1444년(세종26) 추정. 제학공(휘 益達)의 증손. 벼슬은 전농사(典農寺) 주부(主簿)를 지냈으며 향년 25세로 몰함. 묘는 경기도 시흥군 개죽동(현 서울시 관악구 상도동)에서 1968년 충남 천안시 병천면 백전 놀락동 해좌로 천봉(遷封)함. 배위는 永平縣主 全州李氏로서 父는 讓寧大君 剛諱公이다. 1804년에 후손 學元씨가 사초했으며, 1988년 8월 8일에 상형씨가 撰하고 윤희(안-전 대종회 상임부회장)씨가 畵한 묘비석을 백전 종중에서 건립한 바 있다.

기사 제공자 : 恒謙(提)

봉행위	비안공 (휘仁甲)	양덕공 (휘時說)	총익공 (휘時讓)	합천공 (휘 毅)	감사공 (휘 素)	안주공 (휘 繁)	판서공 (휘 徽)	승지공 (휘 龜萬)	부호군 (휘 南挺)	통덕랑공 이하 7위
초헌관	상춘	태관	준응	성진	영희	상환	호응	장응	승응	총회
아헌관	태진	경희	국진	규태	규태	태복	현응	태화	태화	태기
종헌관	태홍	태호	규동	규동	규동	규복	찬응	진식	진식	한용

안사연의 送舊迎新 행사 실시



〈홈페이지 운영평가회 장면〉

〈송년회 및 제38회 등반대회〉

안사연(안동김씨 사이버 학술연구회)은 연간 계획에 의하여 제38회 등반대회를 겸한 2006년 송년회 및 안동김씨 홈페이지 운영평가회를 지난 2006년 12월 16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설악산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총 23경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반성과 내년의 알찬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청정 지역이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강원도 설악산을 택했다.

먼저 전세버스로 이동하는 차내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평가회를 가졌다. 항용종친은 자평을 통하여 만 6년의 역사를 갖는 우리 홈페이지는 전국의 문중 사이트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자료, 내용, 구성, 접속자수, 게시판 게시불수와 유익성 생동성 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안사연의 자료 발굴과 탐사활동, 문중 역사 연구 등이 우리 문중 역사와 홈페이지를 크게



〈시산제 및 제39회 등반대회〉

빛내고 알차게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깊은 감사와 찬사를 전했다.

그러나 일부 과종회(개파)와 지



〈설악동 입구 반달곰상 앞에서〉

역종친회의 자료 미제공, 구성상의 흥미성 미약, 학술적 내용 중심, 일부 종친들의 접속 등은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예산 문제로 인한 서버의 한계, 동영상 미비, 관리 운영상 애로, 연구물 책자 제작 미흡, 이벤트 행사 미실시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1일 접속자수가 2백명을 넘던 2004-5년보다 최근엔 180명 이하로 줄었으며, 1일 게시물수도 8.7개였던 2002-3년보다 3.7개 이하로 줄어든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의 적극적 홍보와 관심 유도책 강구를 강조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한 중·고·대학생 대상의 퀴즈대회 신설 제안, 직거래 장터방과 광고 코너의 추가 등을 담은 홈페이지 개편 계획도 발표하였다.

일행은 이어서 앞으로 특히 연구 탐사해야 할 문중의 주요 분야와 역사 자료,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의 주요 탐사 대상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하며 선정하였다. 설악산 현지에서는 동해의 영금정 일출, 미시령 순두부, 권금성과 눈덮인 신홍사 절경, 미시령 터널과 용대리 황태 등을 시각과 미각으로 만끽하며 안사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다졌다. 한편 이날 뜻하지 않은 폭설로 교통대란이 있었으나 일행의 기지 발휘로 오후 8시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여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였다.

*참가자(총 23명-무순):진회(밀), 재구(군),발용(군-내외),태우(군-내외),태영(군-내외),영환(문-내외),영윤(문-내외),정중(도),상석(제),항용(제-내외),영식(안-내외,지2),은희(익-내외),호순

〈시산제 및 제39회 등반대회〉
새해를 맞은 2007년 1월 14일(일) 아침, 안사연 일행은 계획에 의거 제39회 산행을 겸한 시산제를 청량산과 남한산성 일대에서 실시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제3대 등반대장으로 선임된 영식(안)종친이 주관하

였다. 매월 2째주 일요일, 문중 역사 탐방대회를 겸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 정기 산행(홈페이지에 공고)은 2003-4년엔 1대 윤만(문)종친이, 2005-6년엔 2대 상석(제)종친이 등반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오전



〈권금성 정상 봉화대에서〉

10시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은고개에서 만난 일행 16명은 먼저 〈교차로 신문사〉 뒤로 돌아 문운공과 사인공계 종회에서 1990년경 아름답게 조성한 묘역에서 학생공(휘允文), 승지공(휘 慎) 이하 약 10여기의 선조님께 참배하고 수려한 구양순 서체의 묘비문과 국한문식 비문을 감상했다. 이어 이곳으로부터 이어진 가파른 산등성이를 타고 눈덮인 능선을 넘어 조선 초 형인 태종 이방원에게 희생당한 의안대군(이방석) 사각 묘소 인근의 고즈넉한 장소에 모여 시산제(始山祭)를 올렸다. 헌관 및 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영식(안,등반대장), 아현관-용주(안), 종헌관-호순, 축관-영환(문), 집례-항용(제), 집사-상석(제), 은희(제)

한글 축문을 통해 일행은 제신들의 보살핌에 감사하고 우리 선조님들의 음덕과 은혜에 감사했으며, 안동김문 모든 가정의 부사안녕과 무궁발전, 안사연의 안녕과 무사 산행을 간절히 기원하였다. 이어 동장대, 쟁성암문과 벌봉을 지나 산성으로 들어가 북문, 서문, 수어장대, 남문을 거쳐 성남시 백련사에 이르는 장장 7시간의 신년 첫산행을 무사히 마쳤다.

*참석자(16명-무순):영환(문-내외),영윤(문)재구(군),상석(제),윤만(문),은희(익),발용(군-내외),태영(군),항용(제),영식(안),용주(안-내외),혜경,호순

기사 제공자 : 恒鏞(提)

자랑스런 안동인

泰麟대중회 명예회장 수상기념비 제막식



2006년 11월 20일 11시 충남전안시 병천면 도원리 광기부락 태인명예회장의 생가터앞에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타리수상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수상내용은 “국제로타리 超我的 봉사상”, “국제로타리 재단특별공로상”,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超我的 奉仕人상”이며 이상은 진실한 언행과 숭고한뜻으로 헌신 봉사를 실천수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분에게 로타리에서 수여하는 최고영예의 賞이다.

자랑스런 안동인 榮德賢宗



榮德賢宗께서는 郡事公后祭訪公諱堪의 9代손으로 평소 숭조사상이 무철하고 82세의 고령임에도 門中大小事 및 爲善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은 물론 종친간이나 집안간에도 孝의 사상과 崇祖정신을 일깨우고 또한 私有地를 宗中에 기탁하여 그 수익금으로 효자효부 및 공로가 큰 종친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며느리에게는 부모 모시는 예절과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도리를 훈도하는등 鄉里주위에서도 칭송이 자자하다. 또한 장남인 진복종친은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여 효자상을 받았으며 칠방공묘 소위선사업에도 적극참여하여 공로패를 받았다. 영덕현종은 父駿源과 밀양차씨 사이에 5형제중 막내로 태어났다. 영덕현종은 슬하에 3男3女를 두었다.

한글30년연구 33종 서체자전 역은 容貴종친



영귀종친은 익원공과 항식종친의 5남매중 둘째로 2006년 10월 9일 560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국내최초 「한국서체자전」편찬 및 「한글의 다양한 서체창작」으로 문화포장을 받았다. 영귀종친은 현재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과장으로 근무하고있다.

다음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이다.

초등학교때부터 전북고창의 “병필소년”으로 불렸던 그는 한글 서예가가 되어 30여년간 아름다운 글씨를 썼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조들이 남긴 다양한 한글서체들을 연구한끝에 한글발전 유공자로 상을받았다. 560돌 한글날을 맞아 9일 오전 열리는 기념식에서 문화포장을 받는 金容貴(51)씨, 김씨는 한글서예가이자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전안소재) 학술정보봉사과장이다. 그는 지난 1996년부터 10년에 걸쳐 3권의 “한글서예대사전”을 펴낸 공로로 수상한다. 20대 초반부터 판본체, 궁체등을 연구해왔던 그가 40대들어내기시작한 “한글서예대사전”은 훈민정음등 옛문헌의 판본체와 궁체, 또는 현대서예가들의 서체를 일목요연하게 비교, 정리하고 있다. 김씨는 다양한 한글서체를 계속발굴해 디지털시대에 어울리는 한글문화를 꽃피우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수 기자

인천종친회 창립30주년 2006년도 ‘송년의 밤’ 행사



인천종친회(회장 김춘교)는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5시 인천 장안웨딩홀 부페에서 종친회원 가족 100여명과 홍식대종회장, 명회수석부회장, 관목사무총장, 전서공과 근성회장, 안림사공과 영만회장, 경기 화성의 전서공과 소종중인 화기공과 종문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송년의 밤 행사를 성대히 가졌다.

춘교회장의 인사말과 홍식대종회장의 축사에 이어 종친회 발전에 공이 큰 군사공과 승용, 찬성 종친에게 공로패와 부상이 수여되었다.

창립 30주년 기념 케이크 절단식에 이어 석식후 노래자랑 등 여흥시간을 가졌는데 푸짐한 상품과 기념품을 증정하였으며 시종 화기에 애한 가운데 마쳤다.

●축하화환:대종회 홍식회장, 군사공과 수인회장

-인천종친회 제공-

알림

「종보구독성금, 임원회비납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

60만 우리종친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종회는 전종친의 아낌없는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종회 발전에는 임원및 종친들께서 헌성해주시는 연회비와 안동김씨종보구독성금(봉상회비)이 종사운영의 원동력입니다. 임원한분, 한분의 성금납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회장단:20만원, 이사:5만원
 - 온라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356-01-0012-521(안동김씨 대종회)
- 종보구독성금은 1년에 2만원입니다.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홍식

宗中消息

①문영공 종회회장에 (안)會潤(회윤)현종

2006년 11월 27일 문영공 종회에서는 신입회장에 (안)회윤현종을 선출하고 총무에 (안)용주 재무에 (익)재광 감사에 (제)태욱현종을 선임하였다.

②개성윤공회장에 이경(履景)현종

2006년 10월 개성윤공종회에서는 상국회장후임에 이경현종을 신입회장을 선임하였다. 또한 개성윤공과 대종회이사인 창식현종후임에 응선현종을 선임하였다.

③제학공파 회장에 남응(南應)현종

2006년 11월 26일 종회에서 영목회장후임에 현대종회 이사인 남응현종을 신입회장으로 선임하였다.

④2007년 1월 21일 서울 도동 고려삼계탕집에서 안림사공 6代孫인 참봉공후손(병천 광기)모임인 재경종친회가 열렸다. 이날 신입회장에 전 세계일보 편집부장인 泰彦(태언)종친을 신입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재경종친회는 年4회 모임을 갖는다.